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 방일품(放逸品) ③

若前放逸 逸전방일  
後能自禁 후능자금  
是世間間 시소세간  
念定其宜 염정기의

만일 먼저 방일했다더라  
나중에 스스로 금할 수 있으면  
이는 세상을 잘 비추는 것  
선정의 마음은 마땅히 그러하다

過失爲惡 과실위악  
追覆以善 추복이선  
是世間間 시소세간  
念善其宜 염선기의

잘못한 일을 악인을 알아  
뒤쫓아 선으로써 덮어 버리면  
이것도 세상을 잘 비추는 것  
선을 생각함은 마땅히 그러하다

少壯捨家 소장사가  
盛修佛敎 성수불교  
是世間間 시소세간  
如月雲消 여월운소

젊은 날에 집을 버리고  
부처의 가르침 넉넉히 닦으면

### “생각 비우고 비워 도에 가까이 가면 나쁜 마음의 속박 풀려 그대로 편안”

이것도 세상을 잘 비추는 것  
마치 구름 걷혀 달이 나타나듯이

人前爲惡 인전위악  
後止不犯 후지불범  
是世間間 시소세간  
如月雲消 여월운소

사람이 먼저 악을 행했어도  
나중에 그쳐 범하지 않으면  
이것도 세상을 잘 비추는 것  
마치 구름 걷혀 달이 나타나듯이

生不施惱 생불시뇌  
死而不滅 사이불멸  
是見道得 시견도득  
應中勿憂 응중무우

살아서는 남에게 고통을 주지않고  
죽어서는 꺼릴게 없다면  
이는 도의 공성을 본것이라  
중도에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

斷濁無法 단탁무법  
學性漸白 학유성백  
度淵不返 도연불반

棄捨行止 기의행지  
不復染樂 불부염락  
欲斷無憂 욕단무우

흐리고 어두운 법 끊어버리고  
오직 맑고 밝은 법을 배워서  
생사 연못 건너서 되돌아 오지  
않으니

행하고 그침에 기쁨도 버리고  
다시는 쾌락에 몰리지 않으니  
욕망은 끊어져 걱정이 없으리라

##### 심의품(心意品) ①

意使作狗 의사작구  
難離難禁 난호난금  
慧正其本 혜정기본  
其明乃大 기명대

의식으로 개를 지어 부리면  
지키기 어렵고 가두기도 어렵다  
지혜로 의식의 근본을 바꾸어야  
밝음은 비로소 커진다

輕難離持 경조난지  
唯欲是從 유욕시중  
制意爲善 제의위선  
自調則寧 자조즉녕

생각이 경망하고 조급하면 지키기

어렵다.  
오로지 욕심만을 좇게 되니  
의식을 제어하여 바르게 되도록  
스스로 조절하면 곧 편안해 진다

意欲難離 의미난전  
隨欲而行 수욕이행  
慧常自護 혜상자호  
能守即安 능수즉안

의식의 미묘함은 보기 어렵다  
욕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니  
지혜로운 이 언제나 스스로 지키다  
잘 지키면 그대로 편안하다

獨行遠逝 독행원서  
覆滅無形 복장무형  
損意近道 손의근도  
魔業乃解 마계내해

의식을 혼자서 멋대로 쓰다녀도  
가리고 감춰진듯 형상이 없다  
생각을 비우고 비워 도에 근접하면  
나쁜 마음의 속박도 풀리게 된다

龍眼

## 고산스님 (쌍계사 조실)

경남 울주군 삼북면 천진리 428번지에서 자란 나는 13살때 부친의 손을 잡고 양산 통도사의 구하(九河:1872~1965)스님을 친견하러 갔어요. 출가할 뜻을 말했으나 구하스님은 '좀더 크거든 오너라' 하셨어요. 1개월후 이번에는 범어사로 출가하고자 동산(東山:1890~1965)스님을 친견했어요. 그때 동산스님은 '진작 오지 왜 인제 왔나' 하셨지요. 당시에는 입산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범어사에서 약 6개월간 행자생활을 했어요. 이듬해 해방되면 해 고향친구들을 만나 '세속 공부들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넘어가 3.4개월 정도 부산에서 기술을 배우기위해 시계방 양복점 책방 조선소 등지에서 안해본 일이 없었어요. 물론 직성이 맞지 않았던지 다시 절로 되돌아왔지요.

은사이신 동산스님은 조석예불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여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예불에 참석하는 정성을 보이셨어요. 또 대중공양과 마당 청소도 거르지 않고 대중과 함께 하셨지요. 특히 예불 때는 팔상전 나한전 산신각, 심지어는 조왕단에까지 일일이 참배 하셨습니다.

동산스님은 백장침구의 '일일부작(一日不作)이런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놀고 먹는 것은 대중은 물론 자신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당시 3년간의 행자교육은 엄청나게 혹독한 수행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출가를 잘 허락하지도 않아요. 마치 개를 집에 안 들이려 하는 것처럼 무지마치게 대하죠. 그래도 발심자가 그 수모를 참고 입산을 하게 되면 감내하기 힘든 시련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양주에서부터 채공(菜供), 나무하기, 밭갈기 등 모든 율력을 하면서 기본교리를 익히어야 해요. 상좌들은 햇바닥 보나 날래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할 줄 모르는 것이 없는 만능인이 되어야 사미계를 득(得)할 수 있었으니까요.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장담그기, 예불·염불하고 불공시식, 뒷사람 섬기고 아랫사람 다스리기, 농사짓기, 빨감하기, 예의도덕 익히기 등에 고두 등등에 대중의 시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수련과정이 있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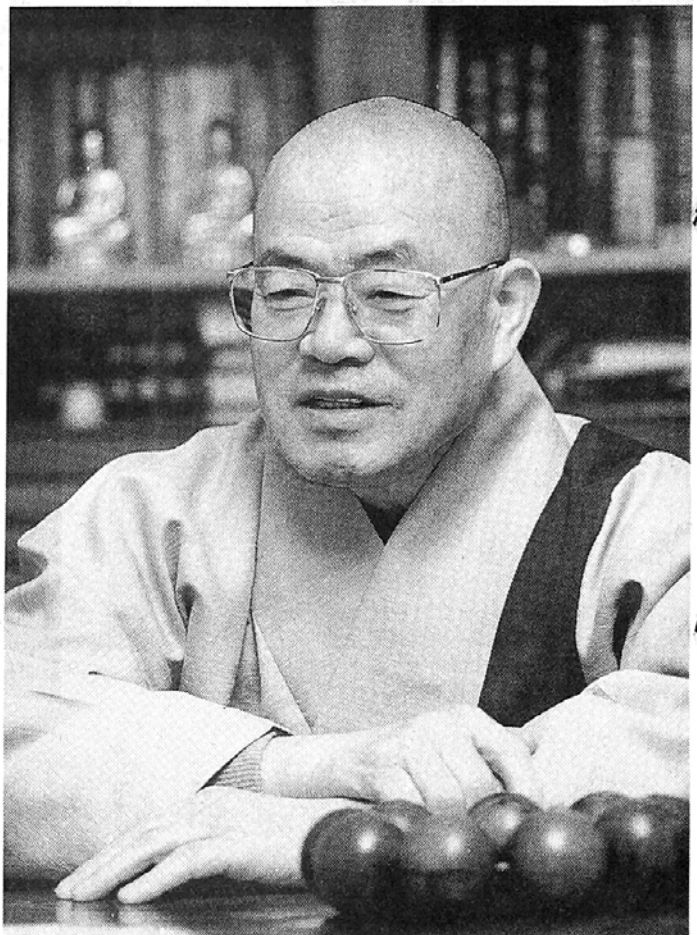
공양간에서는 일류 요리사, 논·밭에서는 신농씨(神農氏: 농업의 시조), 나무질할 때는 일류 목수와 나뭇꾼, 염불할때는 예식종장(儀式宗長)이 되어야 했어요. 이

렇게 단련이 될 때 최고의 선사·법사·율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갖춰진다는 생각에서죠.

당시에는 스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정진했지만 요즘엔 사정이 달라요. 내게도 70여명의 상좌가 있었지만 절반이 중도에서 포기했어요. 일도 안하고 배우려고도 안한다는 거지요. 빨래, 바느질, 청소 등 기본적인 일은 귀찮아하고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 해요.

사회가 어지러우니 수행자들도 물이 든 거예요. 세간에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이 우글거리듯 절간에도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정지헌 공무원 서민에 이르기까지 타이틀만 세우려하는 '빛 좋은 개살구'식의 풍조가 생겼습니다.

- 34년 경남 울산 생
- 48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61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전법계 받음
- 61~69년 청암사·범어사 강사
- 69~75년 법문사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
- 75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78년 제5대 중앙종회의원
- 79년 경남도정 자문위원(現)
- 84년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 ‘반드시 이루겠다’ 마음 자세로 무슨일을 하든 한 우물만 파세요 수행도 이와같이 해야합니다

아무튼 나는 20세부터 4.5년간 절말을 짊어지고 전국을 떠돌며 참선만 했어요. 그때 화두는 '이윽고(是甚麼)'였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문자도 없으며, 앞도 뒤도 없다. 물종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였죠.

한번은 통도사와 범어사가 합동방생법회를 할 때였습니니다. 법회를 마치고 온천장 입구에 집합해서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때 택시 잡기가 어려웠는데 경봉(鏡峰:1892~1982)스님이 먼저 택시를 잡았어요. 그러자 동산스님이 '내가 더

바쁘네!' 하시니 경봉스님께서 '그러면 먼저 타고 가라'고 양보하셨어요. 동산스님께서 먼저 택시에 타고 막 출발하려는데, 경봉스님께서 오른 손을 활짝 펴면서 '도인의 작별은 이것이야' 하니 동산스님은 주먹을 쥐고 들어보이며, '이거 아느냐?' 하셨어요. 그러자 경봉스님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탄 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도인들의 작별인사가 이러했지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 작별인사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니다. 경봉스님의 다섯 손가락(五指)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각자 저 갈대로 간다'는 차별법인이었고, 동산스님의 주먹은 '너와 나의 마음은 하나로서 항상 같이 있다'는 무차별 법문이었던거지요. 또한 경봉스님이 얼굴을 돌린 것도 여기에서는 입을 벌리면 벌써 그르치기 때문에 불야타조야(佛也打祖也打)인 일학자(一着子)도리인 것입니다.

“도인(道人)이라야 능지도인(能知道人)이요, 성인(聖人)이라야 능지성인(能知聖人)이란 말이 실감났지요. 이 일이 훗날 화두 정진에 큰 전환점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화두 참구를 하면서도 뚜렷한 증험이 없자, 우리나라의 제1대 강백이셨던 고봉(高峰:1901~1969)스님을 뵈게 되었어요. 고봉스님께서선 선교양종을 터득하신 큰 스님이셨죠. 언제나 새벽 3시에 일어나 경을 연구하고 선정에 들었으며, 학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엄격함이 대단하셨지요. 그때 선방 수좌들은 경 공부를 하려는 나를 보고 타락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10여년을 스님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공부했어요. 두루불꽃 하루 3시간

##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 상품을 직접 제작해온 삼보기업에서 불자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획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 기획상품
- 상품명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 제품 사양 : 크기 - 가로 40cm x 세로 40cm  
재질 - 원목 사용, 무번금분 사용.  
원목위에 사찰명 기재가능.
  - 제품가격 : 35,000원
- ※ 원하시는 경전문구로 제작가능. 다량주문시 제작원가로 보급.

### 삼보기업의 기획시리즈

부처님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불자의집	주소	시 구 동 번	번
성명	TEL		
사찰명			

● 불자가정 문패 ●



스님들께서 신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항상 좋은날 되소서

연락처

● 불자가정 안내판 ●

- 크기 : 19cm x 11cm ● 재질 : 연결 포텍스 (일크인쇄)
- 150매 이상 주문시 1개당 1,500원

삼보기업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 B/D 4층  
T)279-2715 F)275-3739

##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시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연구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차림결혼연구원'을 「현대정보결혼연구원」으로 명칭을 새롭게改名하였습니다.



원장 이영숙(본명)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상하며 새로운 각도로 연구 노력하였습니다.

성인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대추,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빌딩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